

나. 도시계획 평가지표 사례연구

현재까지의 도시의 발전과정을 종합하면 생태도시에 이르기까지 생태학적 관점에서 도시와 인간의 관계를 해석하고 공존의 개념에서 정의하였다.

도시의 지속가능성은 미래성, 자연성, 참여성, 형평성 및 자급성의 5요소를 통합적으로 연계하여 추구해야만 실현할 수 있다(이창우, 1995). 생태도시에 대한 개념정의와 함께 그 유형을 구분하고 지속가능한 생태도시라는 관점에서 현대도시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2008)은 생태문화도시의 구성요소를 비전, 도시 상의 비전을 이루기 위한 목표와 그 내용과 방법으로 구분하였으며, 3가지 요소로 지속가능성, 문화경관, 주민참여 및 거버넌스로 구성요소를 도출하였다. 생태문화도시 개념을 정립하였으며, 기존사업 속에서 생태문화도시의 관점을 강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정책을 통해서 생태문화도시를 추진할 필요성이 있음을 확인한 바 있다.

이재준(2005)은 생태도시계획지표를 토지이용 및 교통 정보통신, 생태 및 녹지, 물·바람, 에너지, 환경 및 폐기물, 어메니티의 6개 부문으로 구성하였으며, 생태도시의 물리적 기반시설과 자연생태의 보전 수준을 객관적인 지표를 통해 측정하였다. 문화적 지표인 경관, 문화, 주민참여 지표는 어메니티 1부문에 제시되었다. 문화도시의 계획지표에서는 대부분 정책, 인력, 활동, 기반조성(문화시설, 활성화), 문화자원, 문화향유 및 복지 지수 등이 제시되고 있다.

Beatley(2013)는 지속 가능하고 탄력적인 도시가 오늘날의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선의 희망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였고, Biophilic Cities를 주장하였다.